



말. 생각...

정은/가족치료 연구소장 www.tafamily.net

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열달동안 지내다가 세상에 나와서는 다시 어머니 품안에서 젖을 먹고 긴 시간 보살핌을 받고서야 자기를 돌볼 수 있는 어른이 된다. 서양사람들이 급할 때 하느님을 찾는데 비해 우리는 '엄마야'를 찾는다. 그만큼 우리는 전통적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어머니의 보살핌을 극진히 받으면서 살아 왔다.

그 시절엔 밤늦게 공부하러 해도 어른들이 전기 아깝다며 일찍 자라고 채근하시던 도무지 요즈음 아이들은 이해못할, 그래서 더더욱 그리움처럼 다가오는 코끝 찡한 포근함을 접어두고 오늘의 어머니들은 눈앞의 성공을 위하여 자녀를 닥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...

1학기 성적표 평균이 60점인 고등학교 1학년생 아들을 앞에 두고 가슴이 짝 막힌 어머니의 대화엔 온갖 걸림돌들이 쟁!하고 흐르는데...

너 이제부터 엄마 계획대로 따라와야 해!(명령. 강요)

'공부도 다 때가 있는 법이야!' (설교. 훈계)
 '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해 보는 게 어떻겠니?' (충고. 해결책 제시)

'우리나라는 관계의 문화야. 좋은 대학을 나와야 세상 헤쳐가기가 쉬워!' (강의)

'너는 정말 생각이 없는 아이같구나...' (비판. 비난)

'맨날 말로만 할게요. 할게요... 그래 언제 할래!' (비웃기)

'너도 기분이 안 좋겠지. 그렇지만 잘 될거야...' (안심시키기. 동정. 달래기)

'네 생각을 좀 듣고 싶다. 도대체 어떻게 할 생각이니?' (질문. 탐색)

'정말 창피해 죽겠다. 아무개 좀 봐!' (비교)

이러한 걸림돌들은 아이들의 마음을 잠시 상하게 하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. 마치 최면술처럼 아이들의 무의식속에 씨앗으로 자라나 인격을 형성하는 한 부분으로 자리잡게 된다.

세상 모든 어머니들의 가슴을 스쳐 지나가는 풀향기 같은, 따사로운 아지랑이 같은 넉넉함으로 이 대화를 바꾸어 보기로 하자.

엄마:네 성적표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...

아들:저도 앞이 안보였어요. 이제 죽었다 생각했지요. 뭐

엄마:어떻게 성적표 내놓을까 걱정했었구나.

아들:혼나는 거야 각오했으니까 성적표 보이는 것은 쉬웠지만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되었어요...

이렇듯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듣기 위해 내 마음을 열었을 때, 스스로 해결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.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일관되게 따뜻함(warm)과 확신(firm)으로 대한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일상의 모서리에 마음을 다치는 경우에도 흘러가는 구름처럼 손짓, 발짓 담아 떠나보내고 평화롭고 행복한 시간들을 마련하기 위한 지혜를 모을 수 있으리라 싶은 마음이다. PPFK

